



## 梵日の 崛山門 개창과 성장기반 조성

Beomil's Opening of Gulsanmun and Making of Foundation for its Growth

---

저자            정동락  
(Authors)      Jung, Dong-lak

출처            [신라사학보](#) , (35), 2015.12, 65-98 (34 pages)  
(Source)        [SILLASAHAKPO](#) , (35), 2015.12, 65-98 (34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93234>

APA Style      정동락 (2015). 梵日の 崛山門 개창과 성장기반 조성. 신라사학보, (35), 65-98.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210.178.101.\*\*\*  
2020/03/30 15:5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梵日の 崛山門 개창과 성장기반 조성

정 동 략\*

- |                        |                  |
|------------------------|------------------|
| I. 머리말                 | III. 洛山寺·三和寺 포섭과 |
| II. 梵日の 崛山寺 주석과 崛山門 개창 | 굴산문의 기반 조성       |
|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梵日(810~889)선사는 溟州 출신으로, 그의 집안은 金周元계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졌다. 崛山門의 성장은 범일의 가문과 김주원계의 후원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다가 신라왕실에서 國師로 초빙한 871년(경문왕 11) 무렵부터 왕실의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범일과 굴산문은 김주원계의 후원으로 성장했고, 신라왕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다.

범일의 비문은 효공왕 때에 朴仁範이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굴산사 터에서 발견된 비석 조각의 ‘溟州都督’과 ‘副都督’ 등은 비석 건립에 관여한 인물이었다.

굴산사에 머물던 범일은 洛山寺와 三和寺 등을 포섭하였다. 낙산사와 삼화사는 모두 화엄종 계통의 사찰이었다. 낙산사에서는 김주원계의 도움이

\* 대가야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요 논저 : <신라말 고려초 청송 지역의 호족> 《新羅史學報》 29, 2013 ; <신라의 中岳과 팔공산 동봉유적> 《韓國古代史探究》 17, 2014 ; <나말려초 崛山門 梵日과 三陟지역> 《이사부와 동해》 10, 2015 외 다수.

있었고, 삼화사에서는 신라왕실의 후원을 받았다. 범일은 굴산사의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거점 사찰을 확보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주제어 : 신라하대, 범일, 굴산문, 굴산사, 낙산사, 삼화사

## I. 머리말

신라말 고려초(이하 ‘나말려초’)는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격동의 시기 중 하나였다. 불교 사상계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선종이 전래되어 확산되면서, 사상계의 활력을 불어 넣었다. 道義와 洪陟 이후 유학생들이 귀국해 소위 9산선문을 개창하여, 선종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sup>1)</sup>

通曉大師 梵日(810~889)은 851년(문성왕 13) 溟洲의 崛山寺에서 崛山門을 개창하고, 40여 년 간 구도와 교화활동을 전개하였다. 문하에는 郎空 行寂(832~916)과 朗圓 開淸(834~930), 頭陀 信儀 등을 배출하였다. 굴산문은 강릉을 중심으로 강원과 동해안 일대에 광범위한 세력권을 형성하였다. 굴산사지에는 범일의 추정 부도가 있고, 탑비편이 수습되었다.<sup>2)</sup>

- 
- 1)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 조범환, 《나말려초 선종산문 개창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정동락,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동향> 《한국고대사탐구》 7, 2011 ; 조범환, 《나말려초 남종선 연구》, 일조각, 2013.
  - 2) 신천식, <한국불교사 상에서 본 범일의 위치와 굴산사의 역사성 검토> 《영동문화》 창간호, 1980 ; 불교사학회, 《한국불교선문의 형성사 연

범일과 굴산문에 대해서는 1970·80년대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고,<sup>3)</sup> 1990·2000년대에 들어와 그 폭이 확대되었다.<sup>4)</sup> 굴산사지에 대한 조사도 꾸준히 이루어졌으며,<sup>5)</sup>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

구», 민족사, 1986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사굴산문 굴산사》, 2012 ; 홍성익, <굴산사지 범일의 부도 명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24, 2012 ; 홍성익, <신라말 강원지역 선종의 전래와 정착과정> 《신라사학보》 33, 2015.

- 3) 최병현, <신라하대 선종구산과의 성립> 《한국사연구》 7, 1972 ; 신천식, 앞의 글, 1980 ; 장문철, <영동지방 선종보급에 관한 연구-나말려초 사굴산파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방동인, <굴산사에 대한 연구와 전망> 《고문화》 24, 1984 ; 김두진, <신라하대 굴산문의 형성과 그 사상> 《성곡논총》 17, 1986.
- 4) 정성본, 《신라선종의 연구》, 민족사, 1995 ; 김홍삼, <나말려초 사굴산문과 정치세력의 동향> 《고문화》 50, 1997 ; 방동인, <굴산사와 범일에 대한 재조명> 《임영문화》 24, 2000 ; 김홍삼, <신라말기 사굴산문의 정도신앙과 화엄사상> 《강원문화연구》 19, 2000 ; 김홍삼, <나말려초 굴산문 신앙의 여러 모습> 《역사와 현실》 41, 2001 ; 정동락, <통효 범일(810-889)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24, 2001a ; 김홍삼, 《나말려초 굴산문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정동락, <범일(810-889)의 선사상> 《대구사학》 68, 2002 ; 김홍삼, <나말려초 굴산문 개창과 정치세력> 《한국중세사연구》 15, 2003 ; 김홍삼, <나말려초 굴산문의 선사상> 《백산학보》 66, 2003 ; 김홍삼, <신라말 굴산문 범일과 김주원계 관련설의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50, 2008 ; 최인표, <나말려초의 대자사-낭공행적을 중심으로-> 《안동문화》 11, 안동문화원, 2003 ; 조범환, <신라 하대 범일선사와 굴산문의 개창> 《나말려초 선종산문 개창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신호철, <후삼국시대 명주호족과 굴산사> 《한국고대사탐구》 9, 2011 ; 조범환, <굴산문의 성장과 분화> 《나말려초 남종선 연구》, 일조각, 2013 ; 석길암, <나말려초 오대산 불교권의 재형성과정과 배경> 《한국사상사학》 46, 2014 ; 정동락, <나말려초 굴산문 범일과 삼척지역> 《이사부와 동해》 10, 2015.
- 5) 도의철, <굴산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향후 과제> 《고대도시 명주와 굴산사》,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1 ; 도의철, <강릉 굴산사지(사적 제

다.<sup>6)</sup> 학술대회를 비롯해 학술총서도 발간하였고,<sup>7)</sup> 불교미술사 분야의 성과도 축적되었다.<sup>8)</sup>

신라시대 선승들은 法脈과 遊歷을 통해 門徒를 늘리고, 소속 사원을 확보함으로써 선문을 확대해 나갔다.<sup>9)</sup> 굴산문의 전개는 범일과 제자들의 활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소속 사원을 정리함으로써 구체화 할 수 있다. 굴산문은 本山인 명주(강릉)의 굴산사를 비롯해 五臺山の 月精寺, 양양의 洛山寺, 춘천의 建子庵, 삼척의 三和寺, 봉화의 太子寺, 울산의 石南寺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세력권을 형성하였다.<sup>10)</sup> ‘가원(영동)과 동해안’이라는 지역적인 분포를 보인다.<sup>11)</sup> 범일이

448호) 가람의 고고학적 성과와 고려 굴산사> 《한국선학》 36, 2013.

- 6) 신천식, 앞의 글, 1980 ; 백흥기, <명주 굴산사지 발굴조사 약보고> 《고고미술》 161, 1984 ; 강릉대학교 박물관, 《굴산사지 부도 학술조사보고서》, 1999 ; 강원문화재단연구소, 《강릉 굴산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006 ; 국립중앙문화재단연구소, 《강릉 굴산사지 제1차 시굴조사약보고서》, 2010 ; 국립중앙문화재단연구소, 《강릉 굴산사지 제2차 시굴조사약보고서》, 2011 ; 국립중앙문화재단연구소, 《강릉 굴산사지(사적 448호) 시굴조사보고서》, 2013 ; 국립중앙문화재단연구소, 《강릉 굴산사지(사적 제448호) 제3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2014.
- 7) 국립중앙문화재단연구소, 《고대도시 명주와 굴산사》, 2011 ; 국립중앙문화재단연구소, 앞의 책, 2012 ; 국립중앙문화재단연구소, 《옛 기록 속의 굴산문》, 2013.
- 8) 엄기표, <굴산사지 당간지주와 석조부도의 양식과 미술사적 의의> 《고대도시 명주와 굴산사》, 국립중앙문화재단연구소, 2011 ; 엄기표, <굴산사지 석조부도의 주인공과 미술사적 의의> 《선사와 고대》 37, 2012 ; 최성은, <명주지역 나말여초 불교조각과 굴산선문> 《문화재》 45-2(통권 56), 국립문화재단연구소, 2012 ; 홍성익, 앞의 글, 2012.
- 9) 한기문, <신라말 선종 사원의 형성과 구조> 《한국선학》 2, 2001.
- 10) 김두진, 앞의 글, 1986, 301~306쪽 ; 조범환, <굴산문의 성장과 분화>, 앞의 책, 2013, 120쪽.
- 11) 한기문은 “산파의 사원 분포는 공간적으로 일정한 지역성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동리산파가 무주일대이고 실산상파가 지리산 일대이나 나머지

명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기반을 닦았고, 2·3세대 선승들에 의해 확산되었다.

이 글은 굴산문의 발전을 단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기왕의 성과를 토대로 범일의 굴산사 주석과 굴산문 개창을 정리하였다. 뒤이어 낙산사, 삼화사 등을 포섭하면서 굴산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 과정을 검토한다. 굴산문의 발전을 소속 사원의 확산만으로 그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범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굴산문을 성장시켰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의 門人인 신의, 개청, 행적 등에 의한 굴산문의 발전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 II. 梵日の 崛山寺 주석과 崛山門 개창

### 1. 범일의 굴산문 개창과 단월세력

최치원은 <도헌비>(893년)<sup>12)</sup>에서 신라하대 선종의 역사를 정리했다. 당시 禪僧을 중국에서 유학하여 그곳에서 입적한 자, 본국으로 귀국하여 큰 스님이 된 인물, 유학하지 않고 도를 이룬 승려 등으로 나누었다. 귀국한 승려들은 ‘北山義 南岳陟’과 그 뒤에 대략 10여명을

---

는 매우 분산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한기문, 앞의 글, 2001, 297쪽). 굴산문도 강원(영동)과 동해안 일대라는 지역성을 보인다.

- 12) 선승 비문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했으므로 출전은 생략하며, 서술의 편의를 위해 <○○비> 등으로 축약했다.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3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이지관, 《교감역주역대고승비문》 신라편·고려편1, 가산문고, 1993·1994 ; 한국역사연구회, 《역주 나말려초금석문》 상·하, 혜안, 1996.

열거했다. 그는 범일을 귀국해서 중생의 아버지가 되고 왕의 스승이 된 선승으로 평가했다. <도헌비>는 범일 입적 4년 후에 완성되므로, 범일의 명성은 당대에 널리 알려졌다. 洞眞 慶甫(864~947)는 입당(892) 전에 聖住寺의 無染과 靑山사의 범일을 찾아 가르침을 받았다.<sup>13)</sup> 그는 道誥의 제자로 桐裏山門 승려였으므로, 범일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범일의 문하에는 개칭·행적·신의 등 ‘十聖제자’<sup>14)</sup>들이 배출되었다. 마치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연상케 한다.

A) 고향으로 돌아가 佛法을 널리 선양할 것(弘宣佛法)을 생각하여 會昌 6년 정묘(847) 8월에 큰 파도를 건너 鷄林으로 돌아왔다. … 大中 5년(851) 정월에 이르러 白達山에서 고요히 참선했는데, 溟州都督 金公이 靑山사에 머물러 줄 것을 청하였다. 한번 숲 가운데에 앉아 40여 년 동안 줄지은 소나무를 도 닦는 행랑으로 삼았고, 평평한 돌은 坐禪을 위한 자리로 만들었다. … 咸通 12년(871) 3월에 경문대왕, 廣明 원년(880)에는 현강대왕, 廣啓 3년(887)에는 정강대왕 등 3왕이 나란히 모두 특별히 멀리서 모시는 예의(御禮)를 갖추었고, 멀리서 欽仰함을 펼쳤다. 國師로 책봉하는 예를 갖추기 위해 각각 中使를 파견하여 서울(京師)로 모시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사는 오랫동안 굳은 뜻을 지켜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조당집》 권17, <명주靑山고통효대사>).

범일은 847년(문성왕 9) 8월 ‘弘宣佛法’을 위해 귀국했다. 귀국 후 3년 동안의 행적은 자세하지 않다. 자신이 唐에서 익힌 禪法을 신라왕실의 도움을 받아 펼치고자 했던 듯하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白達山에 머물던 범일은 851년(문성왕 13) 정월 溟州都督 金公이 靑山사에 주석할 것을 청하자 그곳으로 옮겨 傳法에 전념하였다. 《조당집》에 의하면 靑山사는 범일이 주석할 즈음 창건되어 있었다. 《삼국유사》에서는 범일이 靑山사를 창건하고 傳

13) <경보비>.

14) 《오대산월정사사적》, <신효거사친견오류성중사적>.

敎한 것으로 전한다.<sup>15)</sup> 소규모의 사찰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명주도독의 초빙으로 주석했던 듯하다.

범일은 鳩林冠族인 金씨로, 할아버지인 述元은 명주도독을 지냈다. 아버지는 이름이 전하지 않고, 어머니인 文(支)씨는 累葉豪門출신이었다. 金술원은 명주도독을 지낸 후 명주에 정착했고, 아버지는 명주에서 지방세력화 한 문씨와 결혼했다. 범일은 조부 때에 명주로 낙향한 진골가문 출신이었다. 문제는 그의 집안과 金周元의 관계이다. 범일은 金주원계와 밀접했다거나, 아니면 그와는 무관하다고도 한다. 이는 金산문의 단월세력을 보는 시각으로 이어진다.<sup>16)</sup> 金주원이 원성왕과의 왕위계승전에서 패해 명주로 물러난 것은 785년 이후였다. 그의 아들인 金憲昌은 822년(헌덕왕 14), 손자인 梵文은 825년에 난을 일으켰다. 범일은 810년에 태어났고 824년에 출가하였다. 조부인 金술원이 활동한 시기는 750년대 전후, 아버지는 780년대 이후였을 것이다. 일단, 金주원과 金술원의 활동 시기는 차이가 있으나 겹칠 수 있고, 범일의 아버지와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조당집》에는 범일의 아버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언가 석연치 않다. 《조당집》의 <범일전>은 그의 비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그 과정에 아버지의 이름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으로는 비문 자체에서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선승의 비문은 국왕의 허가에 따라 당대의 대표적인 문한관이 찬술하였다. 범일의 아버지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그가 왕실의 이해와 배치되는 활동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범일의 가계는 혈연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을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金주원계와 공통된 이해관계

15) 《삼국유사》 권3, 탑상4,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

16) 전자는 최병현·신천식·김두진 등이며, 후자는 김홍삼·조범환·신호철 등이 대표적이다.



를 가졌을 법하다.

다음, 명주도독 ‘金公’은 신라왕실에서 파견한 지방관으로, 진골귀족이었다. 현재로서는 그에 대해 알기 어렵다. 마침, 855년(문성왕 17)에 찬술된 <昌林寺無垢淨塔願記>에서는 ‘守溟州別駕 金嶷寧’이 확인된다. 별가는 州助·州輔로, 도독 아래의 차관직이다.<sup>17)</sup> 김억녕은 김공 아래의 별가로 행정을 보좌했을 것이다. 851년 김공이 범일을 초빙할 때 실무를 담당할 인물이 김억녕이었을 것이다. 문성왕은 창림사 무구정탑을 통해 국왕의 권위와 백성들의 서방극락정토 왕생을 기원했다. 김억녕은 이 造塔공역에 ‘檢校副使’로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원성왕의 직계나 방계 가족은 아니나, 범 원성왕계나 金陽과 연관된 무열왕계로 추정된다.<sup>18)</sup> 무구정탑 조성에는 金銳(從弟, 兪州 祁梁縣令), 金繼宗(從叔, 武州長史), 金訓榮(從叔, 강주 泗水縣令) 등 국왕의 친족으로 지방 거점의 수령이나 보좌관이 참여했다. 문성왕은 자신의 친족을 지방관으로 파견해 지방 재지세력가를 견제하고 효율적인 통치를 추구했다.<sup>19)</sup>

명주도독 김공은 김억녕과 비슷한 성향의 인물로 보인다. 김공이 범일을 초청한 목적은 명주지역의 효과적인 통치와 재지세력의 견제를 위해서였다. 당시 명주는 김주원의 퇴거 이후 신라왕실에 대한 반감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를 완화하고 김주원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민심을 수습할 필요가 있었다. 그를 위해 특별히 명주 출신으로 김주원계와 연결고리가 있던 범일을 초빙한 것이 아닌가 싶다. 즉, 김공은 당시 국왕이었던 문성왕의 의도에 따라 민심의 이반을 막고 효율

17)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 외관.

18) 강재광, <문성왕대의 정국과 「창림사 무구정탑원기」 조성의 정치적 배경> 《한국고대사탐구》 7, 2011, 124~129쪽.

19) 강재광, 앞의 논문, 2011, 129쪽.

적인 지방지배에 범일의 역할을 기대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일의 굴산사 행이 중앙정부의 입장에 의해서만 이뤄졌다고 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범일은 명주가 자신의 출신지로 세력기반이 있었고, 김주원계의 후원이 기대되며, 거기에 명주도독의 요청이 더해졌으므로 초빙에 응했다. 명주도독의 초빙이 계기가 되었지만, 범일과 김주원계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범일이 굴산사에 주석한지 20년이 지난 871년(경문왕 11)부터 신라왕실에서 본격적으로 주목했다. 이때가 되어서 왕실로 초빙해 국사로 책봉코자 했기 때문이다. 이는 굴산문이 성장한 이후의 일이었다. 굴산문의 성장에는 명주 출신인 범일의 가문과 김주원계의 후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가 871년 무렵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보태졌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범일과 굴산문은 김주원계의 후원으로 성장했고, 871년 무렵부터 왕실의 본격적인 지원으로 급속히 발전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 2. 범일의 입적과 탑비 건립

범일은 889년(진성여왕 3)에 굴산사 上房에서 입적하였다. 《조당집》과 <개창비>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B)① 文德 2년 己酉(889) 4월 말에 門人들을 불러 말하기를 “나는 장차 다른 곳으로 가려하니 지금 永訣을 고한다. 너희는 세속의 얕은 감정으로 어지러이 행동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말라. 다만 스스로 마음을 닦아 宗旨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였다. 바로 5월 1일에 오른쪽 옆구리를 대고 발을 포개어 굴산사 上房에서 입적하였다. 춘추가 80이요, 승랍은 60이었다. 시호는 通曉大師이고, 탑명은 延徽之塔이다.(《조당집》 권17, <명주

굴산고통효대사>)

- ② 문덕 2년(889) 여름에 통효대사가 입적하니 대중들은 모두 검은 색 두건을 썼으며, 절학의 슬픔이 배나 더하였고, 스승을 잃어버린 아쉬움 또한 매우 간절하였다. 정성을 다해 寶塔을 수축하고 급히 碑石을 세워 항상 松門을 수호하였다.<개청비>)

889년은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발발해 신라 국가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진성여왕은 897년(진성왕 11) 6월 효공왕에게 讓位하였다.<sup>20)</sup> 이러한 혼란상은 명주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개청비>에는 “여러 차례 草寇들의 洞口 차단을 크게 힐책했다.”, <행적비>에 “시대가 厄運을 당하여 세상은 몽매한 때”라고 당시의 사정을 전한다.<sup>21)</sup>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진성여왕은 사신을 파견하여 조문 애도하고, 通曉大師라는 시호와 延徽之塔이라는 탑명을 내렸다. 그리고 부도와 탑비 건립을 지원했을 것이다. <개청비>에 “정성을 다해 寶塔을 수축하고 급히 碑石을 세워 항상 松門을 수호하였다.”는 구절은 이러한 사정을 말해준다. 朴仁範이 찬한 <梵日國師影贊><sup>22)</sup>에서 眞影이 제작되었고,<sup>23)</sup> 국사로 추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도와 탑비, 진영제작 등은 개청이 주도했다. 범일의 범통은 개청으로 이어졌던 듯하다.

당시 선승의 비문은 崔致遠·崔彦擣 등 당대를 대표하는 유학자가 찬술하였다. 범일이 입적하는 진성여왕까지는 주로 최치원이 담당했다. <진감선사비>, <낭혜화상비>, <지증대사비> 등 소위 사산비명이 그의 작품이다. 이후 절중, 행적, 형미, 경유, 개청, 이엄, 여엄, 경

20) 《삼국사기》 권11, 진성왕 3년 ; 진성왕 11년 하6월.

21) <개청비> ; <행적비>.

22) 《동문선》 권50.

23) 진영을 그린 선승은 범일을 비롯해, 신행, 도의, 이관, 궁양, 찬유, 탄문 등이 확인된다.

유, □운, 흥준 등은 최언위가 찬술했다. 그 사이 진성여왕 말기나 효공왕(897~912) 때가 되면 박인범이 찬술을 담당했다. 先覺 道誼(827~898)과 澄曉 折中(826~900)의 비문 등이 그것이다. 도선의 비문은 찬술했으나 건립되지 못했고, 절종의 비문은 박인범의 죽음으로 완성하지 못해 최언위가 찬하였다. 그렇다면 범일의 비문은 889년 이후 진성여왕 말기나 효공왕 초반기에 박인범이 찬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침 박인범은 <범일국사영찬>을 짓기도 했다. 탐비명의 題額은 ‘(有唐)新羅國 溟州 嶺山(寺) 故(國師教誡)通曉大師 延徽之塔碑銘 并序’였을 듯하다.<sup>24)</sup> 그 내용은 《조당집》 <범일국사전>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한편, 범일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편이 굴산사에서 수습되었다.<sup>25)</sup> 비편은 6매 내외로 파손 상태가 심하다.<sup>26)</sup>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굴산사는 11세기 초 거란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었고, 天慶 3년(1113년)명 기와로 보아 12세기 초에 다시 중건되어 종풍을 날렸다. 몽고 침략을 거치면서 대부분 소실되어 사세가 위축되었으나, 여말선초까지는 이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sup>27)</sup> 거란이나 몽고의 침략

24) 원랑선사비, 지증대사비, 수철화상비를 참조할 때, 대체로 제액은 ‘국가+ 행정구역+산사+시호+탑호+비명 병서’의 순이었다.

25) 1978년 5월 관동대학교 박물관(관장 신천식)에서 비편을 수습하였다.(《경향신문》 1978년 7월 12일자 7면) 비편의 내용은 신천식, 앞의 글, 1980 및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2 참조.

26)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서 범일 비편 이외에 또 다른 비편이 수습되어 굴산사에는 2기의 비가 건립되었고, 추정 범일 부도 외에 또 다른 2기의 부도가 더 있었음이 밝혀졌다(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앞의 현장설명회 자료집, 2014, 15쪽 ; 홍성익, 앞의 글, 2015, 244~245쪽). 이 비편과 부도편도 범일 비편처럼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 특히, 2개의 비편에서 10여 글자가 확인되나, 주인공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실건을 허락해준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에 감사드린다.

27) 도의철, 앞의 논문, 301~302쪽, 2013.

때에 범일 비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비편 중 글자가 판독되는 것은 2매이다. 크기는 세로 11×가로 9×두께 5.5cm, 글자는 해서체로 2~2.5cm 정도로 음각되어 있다. 글자는 ① “意□(余?) / 和尚言”, ② “溟州都督銀 / 副都督”으로 판독된다.<sup>28)</sup> 이중 ①은 비의 본문 즉 碑表(碑陽)이고, ②는 비의 陰記(碑陰)으로 보인다. ① ‘의□ / 화상언’은 대화의 내용인 듯하다. 《조당집》 <범일전>으로 추정해 본다면, 중국에 유학할 때 鹽官이나 藥山과 나눈 선문답이거나, 귀국 후 굴산사에서 제자들과 나눈 문답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②의 음기는 주목된다. 우측에는 ‘명주도독’, 좌측에는 그 보다 한 칸 아래로 내려 ‘부도독’을 새겼다. 관직의 고하를 구분하기 위한 표현이다. 음기는 탐비의 건립 당시 공역을 담당했거나, 주요 단월, 三綱典 등을 기록한 경우가 많다. ‘명주도독’과 ‘부도독’은 탐비 건립과 관련된 인물일 것이다. 비가 신라 때 건립된 결정적인 증거이다. 도독은 통일신라 9州에 파견된 최고 지방관이었고, 부도독은 그 아래의 관직이다. 州에는 도독-州助(州輔, 別駕)-長史-外司正 등이 있었다.<sup>29)</sup> 부도독이라는 직명은 범일 비편 이외의 사료나 금석문 등에서 잘 검색되지 않는다. 주조(주보·별가)의 또 다른 용례인 듯하다.

다음, ‘溟州都督銀’에서 ‘銀’은 일단 인명일 가능성이 있다. <창립 사무구정답원기>의 ‘수명주별가 김억녕’이나, <무염비>의 보살계제자 ‘武州都督 蘇判 鎰’, ‘全州別駕 英雄’ 등과 유사한 경우이다. 따라서 ‘은’은 ‘김은’ 혹은 ‘김은□’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銀紫光祿大夫’ 혹은 ‘銀青光祿大夫’와 같은 문산계의 첫 글자로 보이기도 한다. ‘무주도독 소관 일’의 경우처럼 관직+관등(관계)+인명의 순서이다. 《삼국사기》 등에서는 ‘은’으로 시작하는 ‘은자광록대부’나 ‘은청광

28)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2, 90~91쪽.

29) 이문기, <통일신라의 지방관제 연구> 《국사관논총》 20, 1990, 24쪽.

록대부’ 등의 문산계를 소지한 인물은 찾아지지 않는다. 한데, 金昕(803~849)은 그보다 높은 위계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822년(헌덕왕 14) 당에 입조·숙위 했다가 이듬해 귀국할 때 당 황제로부터 ‘金紫光祿大夫 試太常卿’의 문산계와 관직을 받았다. 그 뒤 南原太守 등을 역임하다가 康州大都督에 보임되었다.<sup>30)</sup> 그렇다면, 명주도독은 당에 입조·숙위했던 인물일 듯하다. ‘은’은 ‘김은’ 혹은 ‘김은□’라는 인명이거나, 당에서 받은 문산계의 첫 글자일 법하다. 아마, 후자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범일 입적 후 장례, 부도탑과 탑비 건립은 신라왕실에서 후원했다. 범일의 비문은 진성여왕 말기나 효공왕 때에 박인범이 찬술한 듯하다. 명주도독과 부도독은 공역의 실무를 담당했다. 입비를 주도한 제자는 개칭이었다. 한데, 당시 신라왕실과 접촉한 선승은 행적이었다. 그는 범일 입적 직후 朔州(춘천)의 建子若에서 開山하였다. 乾寧(894~898) 초에 王城으로 가서 머물다가 光化(898~901) 말년에 野郡(건자야)으로 되돌아 왔고, 다시 906년(효공왕 10) 경주로 가서 국사로 책봉되었다.<sup>31)</sup> 건녕 초에서 광화 말년까지 행적이 경주에 머문 시기는 진성여왕 말과 효공왕 초에 해당한다. 이때 범일의 탑비 건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진성여왕 때인 888년(진성왕 2)의 명주 승관으로는 溟州僧正 釋 浦道, 효공왕 즉위 초에는 승정 法賢 등이 확인된다.<sup>32)</sup> 이들이 탑비 건립과 관련된 불교계의 뜻을 모으고, 왕실과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역추된다.

30)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양 부 김흔.

31) <행적비>.

32) <절중비> ; <행적비>.

### Ⅲ. 洛山寺·三和寺 포섭과 굴산문의 기반 조성

#### 1. 낙산사 正趣菩薩殿 건립과 경제적 기반 확대

낙산사는 문무왕 때 義相(625~702)이 창건하면서 관음상주처로 정착하였다. 그 후 元曉(617~686)가 방문해 진신상주를 재확인하였다. 신라하대에는 승려 調信이 金昕(803~849)의 딸을 사랑하다가 관음보살의 가피로 깨달음을 얻는다. 낙산사는 의상 이후 신라하대까지 화엄종 사찰로 관음신앙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범일이 이곳에 正趣菩薩殿을 건립하면서 변화를 겪는다.

C)① 후에 崛山祖師 梵日이 太和(827~835) 연간에 입당하여 明州 開國寺에 이르렀다. 왼쪽 귀가 떨어진 한 沙彌가 여러 승려의 말석에 앉아 있다가 조사에게 말하기를, “저도 역시 鄉人입니다. 집은 溟州 界의 翼嶺縣 德耆坊에 있으니, 조사께서 훗날 本國에 귀국하시거든 꼭 저의 집을 지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후 범일은 叢席을 두루 다니더니 鹽官에게서 법을 얻어(이 일은 本傳에 자세히 실려 있다) 會昌 7년 丁卯(847)에 환국하여 먼저 崛山寺를 창건하여 전교하였다. ② 大中 12년 戊寅(858) 2월 15일 밤 꿈에 전에 보았던 사미가 창 아래에 와서 말하기를, “옛날 명주 개국사에 있을 때 조사가 약속하여 이미 허락한 바 있거늘 어찌하여 그리 지체하십니까?”라고 하였다. 조사가 놀라서 깨어나 수습 인을 데리고 익령 경계에 이르러 그의 집을 찾았다. 한 여인이 洛山 下村에 살고 있어 그 마을의 이름을 물으니, 德耆라고 하였다. 그 여인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겨우 8살 이었는데, 항상 촌의 남쪽 石橋 주변에 나가 놀더니, 그 어머니에게 고하기를, “나와 함께 노는 아이 가운데 金色童子가 있습니다.”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조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조사가 놀라고 기뻐하여 그 아들과 함께 다리 밑에 가서 찾았다. 水中에 石佛 하나가 있어 꺼냈더니, 왼쪽 귀가 떨어진 것이 이전에 본 사미와 같았다. 이는 곧 正趣보살의 像이었다. 이에 簡子를 만들어 절 지을 터를 점쳐보니, 낙산의 上方이 길지이브

로 불전 3칸을 짓고 그 보살상을 봉안하였다.(古本에는 범일의 사적이 앞에 적혀 있으나, 살펴보면 의상과 원효 두 법사의 일은 高宗 대의 일이요, 범일은 肅昌 이후의 일이니 서로 떨어지기가 1백 70여 년이나 된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는 앞의 것은 뒤로 물려 차례를 바로 잡아 엮었다. 혹은 말하기를(或云) 범일을 의상의 門人이라고 하나 잘못된 것(誤妄)이다.) 그 뒤 100여 년이 지나 野火가 이 산까지 번져 왔으나 오직 관음, 정취 二聖을 모신 불전만은 화재를 면했고, 그 나머지는 모두 타 버렸다.<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sup>33)</sup>

범일은 입당유학 시 명주 開國寺에서 정취보살의 화신이었던 鄉僧을 만나 翼嶺縣(양양) 德耆坊에 그의 집을 지어주기로 약속했다. 847년 귀국하여 851년에 굴산문을 개창하였다. 7년 뒤인 858년(헌안왕 2)에 洛山 下村 부근에서 正趣보살상을 찾아내고, 낙산의 상방에 불전 3칸을 짓고 보살상을 모셨다. 정취보살은 《화엄경》 <입법계품>의 29번째 선지식으로 善財童子에게 극락 또는 해탈의 길로 들어서는 방법을 알려준다. 선재동자가 정취보살을 만나도록 추천한 28번째 선지식이 관음보살이므로, 관음신앙과도 연결된다. 범일이 낙산사에 정취보살을 모신 것은 의상의 관음신앙과 밀접하였음을 보여준다.

범일이 낙산 상방에 정취보살전을 창건하면서 낙산사는 굴산문에 속한 사찰로 변모된 것으로 보인다.<sup>34)</sup> 그 배경은 ‘범일이 굴산사를 창건할 때 지원한 명주도독 金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sup>35)</sup> 하지만, 현전 자료에서 명주도독이나 신라왕실의 지원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굴산사와 낙산사의 승려, 낙산사 인근 재지세력과 민중들의 후원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한편, 일연은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조를 찬술하면서, 세주로

33) 《삼국유사》 권3, 탑상4.

34) 김두진, 앞의 논문, 1986, 303쪽 ; 조범환, 앞의 책, 2013, 124쪽.

35) 조범환, 앞의 책, 2013, 123~124쪽.



범일과 관련된 <本傳>과 <古本>, 또 다른 전승자료(或云) 등을 언급하였다. 입당 유학 후 염관의 범을 잇는 과정은 《조당집》 <범일전>에서 상세하므로, ‘본전’은 이 것일 가능성이 높다.

<고본>은 <본전>과는 다른 계통으로 범일은 물론 의상과 원효의 전기도 실려 있었다. 그런데 <고본>에서는 범일을 의상과 원효보다 먼저 編次해 놓았다. 이 때문에 일연은 전후의 순서를 바꾸어 바로잡았다. <고본>은 낙산사에서 전해오던 창건조(의상과 원효)와 중창조(범일)에 대한 寺中古記였을 것이다. 그런데 <고본>은 서술의 초점이 범일과 정취보살전 건립에 맞추어져 있었다. 범일의 문인들이 편찬하여, 의상이나 원효보다 중요하게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 즉, <고본>은 굴산문의 입장이 반영된 자료로, 낙산사가 굴산문의 소속임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듯하다.

반면, ‘범일이 의상의 문인’이라는 또 다른 주장(或云)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일연은 잘못된[誤妄] 말이라고 하였다. 실제, 범일은 의상의 문인이 아니었다. 범일이 의상의 관음신앙과 낙산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굴산문이 낙산사를 비롯한 의상계 화엄종 계통의 사원을 흡수했기 때문에 생겨난 주장이 아닌가 싶다. 이는 범일을 자신의 종파로 끌어들이고자 한 의상계 화엄종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낙산사가 화엄종의 사찰임을 강조한 데서 나온 주장이었다.

<고본>과 ‘혹운’을 통해 굴산문과 화엄종 사이에 낙산사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낙산사 사원 경제의 소유권이 계재되었다고 추정된다. 아쉽게도 범일 당시 낙산사의 경제력은 잘 알 수 없다. <襄州地密記>를 통해 그 대략을 짐작해 볼 수 있다.<sup>36)</sup>

36) 김두진, 앞의 논문, 1986, 304~305쪽; 정동락, <고려시대 낙산사의 사원경제에 대한 검토-『양주지밀기』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

D)-① <國禱補案> … ② <玄明譔>에 이르기를 “母인 천룡을 등지고 해변을 향하다가 이 산(낙산) 頭上에서 신선을 만나니 금과옥조와 같은 가르침(玉敎)으로 摩訶衍(대승의 교법)을 長讀하면 三國이 和同하고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 하고, 또 관음대성의 상주설법처를 설치 주었다. 이에 背走의 山形을 진압하기 위하여 정취보살전, 대장전, 소재전, 16성증전, 사천왕전, 만다라제전 및 보중료를 배치하였는데 모두 200칸이었다.”고 한다. ③ <本文>에 이르기를 “九月山 정상에 四王이 내려서니 三韓封境에 어찌 의심이 없으며, 補陞洛山에서 이 법을 지으면 國境의 龍虎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리. 밖에는 曼羅龕室이, 안에는 堂主 妙吉祥童子가 앉아 있으며, 菩薩左髻로 左菩薩을 설치하고 右鄒波髻로 右菩薩을 설치하였다. 星宿殿. 거란군(丹賊)이 諸殿을 敗止시킨 이후 다시 제전을 중수하였다. 석담은 3층으로 觀音殿 뜰 가운데에 있다. 福田은 20명으로 常住하면서 四天王陞羅尼를 염송하였다. 국가에서는 春秋로 觀音齋 2일, 正趣齋 2일, 鎮兵四天王道場 5일을 거행하였다. 齋料布施로는 襄州·溟州·蔚珍에서 燈油를 취렴하고, 春州·洪州·朝宗杖村에서는 兩界의 鹽을 수합하여 (鹽)倉使로 하여금 영을 내려 실행케 한다. 受田畝이 도합(都計) 400결이다. 庚辰(980) 8월 10일 判하기를 景宗조에 誕聖慶賀의 뜻으로 전답 200결을 더하여 속하게(加屬) 하였다.”고 한다. ④ <四標禱補案>에 載錄되기를 “襄州地의 藿田은 5결 63卜이며, 奴婢는 38口이다.”고 한다.(<襄州地密記>)

<양주지밀기>는 신뢰성에 의문이 있지만, 낙산사의 경제 사정을 이해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sup>37)</sup> 여기에 인용된 <국비보안>, <현명가>, <본문>, <사표비보안> 등은 고려시대 裨補寺刹이었던 낙산사의 인적·물적 현황을 기록한 문서로 보인다. 특히, ‘경진년 8월’은 980년(경종 5)이며 ‘景宗조에 誕聖慶賀’는 그해 5월에 경종의 장남 誦(후에 穆宗으로 즉위)이 탄생한 것을 지칭한 듯하다. 또, 거란군(丹賊)이 여러 전각을 敗止시킨 이후 다시 중수했다는 구절도 주목된다. 이는 범일이 정취보살전을 건립한 100여년 뒤에 野火가 있었으나, 관음전

2001b ; 조범환, <굴산문의 성장과 분화>, 앞의 책, 2013, 122쪽.

37) 김두진, 앞의 논문, 1986, 304쪽 ; 정동락, 앞의 논문, 2001b, 537쪽.

과 정취전은 화재를 면한 것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아화로 표현되었지만, 거란군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① <國裨補案>은 走作墮山形인 낙산의 지세를 언급했다. ② <현명가>는 背走의 山形을 진압하기 위해 정취보살전 등 약 200칸의 전각을 배치했다고 한다. 여기서 觀音殿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미 존재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렇다면 이는 범일이 정취보살전을 건립할 때의 상황이 아닌가 싶다. 즉, 범일은 정취보살전 뿐만 아니라 전체 7동 200여 칸의 佛殿을 건립하면서 낙산사를 대대적으로 일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③ <本文>에서는 낙산사에서 개설한 도량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방법, 낙산사 토지의 규모 등을 적시하였다. 낙산사에는 福田 20명이 상주하면서 四天王 隋羅尼를 염송했고, 국가에서 춘추로 觀音齋(2일)·正趣齋(2일)·鎮兵四天王道場(5일) 등을 개설하였다. 그 재원은 襄州·溟州·蔚珍에서 燈油를, 春州·洪州·朝宗杖村(祖宗縣)에서는 兩界의 소금(鹽)을 수합하여 충당하였다. 아울러, 낙산사에는 도합(都計) 400결의 受田畝가 있었고, 고려 경종 때가 되면 200결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낙산사는 총 600결의 전답을 소유하게 되었다. ④ <四標裨補案>에서는 襄州地의 藿田이 5결 63복이며 奴婢는 38口라고 하였다. 낙산사는 미역(곽전) 생산지를 소유하였고, 그것을 채취하는 노비도 있었다.

주목되는 것은 낙산사가 소유했던 400결의 田地이다. ‘都計’라는 표현으로 보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산재했던 듯하다. 이 토지들은 고려 경종 이전부터 소유했던 것은 분명하다. 고려의 승려인 益莊의 <낙산사기>에 의하면, “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우고 春秋로 使者를 보내 3일 동안 齋를 설하여 치성하였고, 그 후에는 甲戌에 적어서 恒規로 삼았다.”<sup>38)</sup>고 하였다. 낙산사에서 춘추로 도량을 개설한 것은

태조 때부터이고, 이후에도 국가에서 법식을 정하여 시행했다고 한다. 태조 왕건은 고려 건국 이후 中外에 소재한 사원을 국가적으로 공인하였다. 그리고 사원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도록 신라 이래의 전답 소유권을 추인하고, 주현의 조세를 지급하거나 田民을 사여하였다.<sup>39)</sup> 낙산사도 이 과정에서 신라 이래 소유했던 400결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던 듯하다.

낙산사가 대규모의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일단, 의상 때 국가로 부터 田民을 하사받았을 듯하다. 범일은 정취보살전 등 불전을 건립하는 중창 불사를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단월세력의 지원으로 전지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400결의 田地는 의상 때부터 범일까지 집적한 결과였던 듯하다. <고본>에는 범일의 事蹟이 의상과 원효보다 앞에 編次되어 있었다. 이는 범일이 낙산사의 寺勢를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범일은 의상 이래 전래되던 토지에, 자신이 정취보살전을 건립하면서 단월세력의 후원을 받아 더 많은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굴산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낙산사가 소유한 토지는 양양을 비롯해 도량 개설의 재원을 부담했던 명주·울진·춘주·홍주·조종현 등 강원 일대에 산재했던 듯하다. 이 지역은 범일과 굴산문의 영향력이 미쳤고, 해당 지역의 재지세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E)① 金周元 : 太宗王의 손자이다. 당초에 宣德王이 죽고 후사가 없으므로, 여러 신하가 貞懿太后的 교지를 받들어, 주원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왕족 上大長等 敬信이 못사람을 위협하고, 먼저 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었다. 주원은 화를 두려워하여 명주

3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도호부, 불우, 낙산사.

39)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30~32쪽.

로 물러가고 서울에 가지 않았다. 2년 후에 주원을 溟州郡王으로 봉하고 명주의 속현인 삼척·斤乙於·울진 등 고을을 떼어서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金宗基 : 주원의 아들인데 대를 이어 왕이 되었다. 金貞茹 : 종기의 아들이다. 비로소 조정에 벼슬하여 上大等에 이르렀고, 溟源公으로 봉해졌다. 金陽 : 정여의 아들이다. 金明 (민애왕)의 반란 때에 神武王을 도와서 사직을 안정시켰다. 벼슬이 侍中 겸 兵部令에 이르렀고, 죽은 뒤에 溟源郡王으로 봉해졌다.<sup>40)</sup>

② 김주원을 봉하여 溟州郡王으로 삼았다. 김주원은 처지가 꺾박되고 일이 의심을 받게 되므로 오래 명주에 거주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에 명주·翼嶺(지금의 양양)·삼척·울진·근을어(지금의 평해) 등의 군현을 割讓해 주어 그의 식읍으로 삼으니, 그 자손들이 세습하였다.<sup>41)</sup>

E)는 김주원의 명주 퇴거와 관련한 사료로, 사실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신라하대 영동지역 세력의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여지는 있다. 원성왕과의 왕위 계승전에서 실패한 김주원은 명주로 물러났다. 원성왕은 김주원을 명주군왕으로 봉하고, 명주를 비롯한 군현을 식읍으로 삼도록 했다. 그의 후손들인 김종기·김정여·김양 등이 세습했다고 한다. 이들이 식읍으로 받은 지역은 명주·익령(지금의 양양)·삼척·울진·근을어(지금의 평해) 등이었다.<sup>42)</sup>

<양주지밀기>에서 낙산사의 도량 개설에 필요한 재원을 담당했던 곳은 양주·명주·울진·춘주·홍주·조종장촌(조종현) 등이었다. 김주원계의 식읍 지역과 낙산사의 토지가 분포한 곳은 제법 겹쳐진다. 명주·양양·울진 등이 그렇다. 그 중 명주는 굴산사가 위치했고, 익령(양양)은 낙산사가 있었다. 범일과 굴산문을 후원한 단월의 성격을 시사

4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릉대도호부, 인물.

41) 《동사강목》 제5, 병인년 원성왕 2년(786).

42) 김창겸, <신라 ‘명주군왕’고> 《성대사림》 12·13, 1997.

한다.

한편, 낙산사는 굴산문의 본산이 있는 강릉의 북쪽에 접해 있다. 강릉과 양양 사이에는 범일의 제자인 신의가 머물렀던 오대산의 月精寺가 있다. 또 낙산사의 북쪽으로는 바로 접하여 신라 선종의 초전승인 道義선사가 머물렀던 설악산 陳田寺가 자리했다. 이곳에서 서쪽 내륙으로 나아가면 행적이 주석했던 建子若가 있던 삭주(춘천)와도 연결된다. 범일의 낙산사 정취보살전 건립은 굴산문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한 측면과 굴산문의 세력범위를 북부지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낙산사는 굴산문이 영동 북부와 중부 내륙으로 진출하는 거점지였던 셈이다.

## 2. 삼척 三和寺 駐錫과 신라왕실과의 結緣

三和寺는 원래 무릉계곡 어귀에 있었는데, 1970년대 후반 동해시 삼화동의 무릉계곡 입구로 이군했다.<sup>43)</sup> 선덕여왕 때 慈藏, 흥덕왕 때 3명의 神人, 혹은 범일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온다.<sup>44)</sup> 삼화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釋息影菴記>를 토대로 범일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다가 1997년 철불의 명문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F) 三和寺는 頭陀山에 있다. 釋息影菴記에 “① 산은 고을 서북쪽 30리에 있다. … ② 新羅 末에 三神人이 있었는데 각자가 거느린 무리(僚伍)가 매우 많았다. 여기에 모여서 서로 더불어 의논하였는데, 옛날 제후가 會盟하던 禮와 같았다. 오랜 뒤에 헤어져 갔

43) 정영호, <삼화사 철불과 삼층석탑의 불교미술사적 조명> 《문화사학》 8, 1997, 25~26쪽.

44) 방동인, <삼화사의 창건과 역사성 검토> 《문화사학》 8, 1997, 8~13쪽.

므로, 土人이 그 봉우리를 三公峰이라 하였다. ③ 그 뒤에(頃) 閼  
 嶺山 品日祖師가 그곳에 가서 佛祠를 건립하고 또한 三公이라는  
 현관을 걸었다. ④ 그 후 태조가 즉위하자(龍飛) 조칙을 내려 이  
 절(三公寺)을 籍名錄案하여 后嗣에 전하게 했으니 이상한 일이  
 다. 대개 神人이 그 자리를 알려주었고, 祖師가 그 터에다 절을  
 지어 祥瑞를 기록하였다. 神聖王께서 三土를 會和하심에 미쳐서  
 는 그 效應이 著明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이용하여 문득 절 이름  
 (寺目)을 삼화사라 고쳤다.”고 하였다.<석식영암기><sup>45)</sup>

석식영암은 고려후기의 승려로,<sup>46)</sup> 고려후기 삼화사의 역사성과 범  
 일과의 관련을 강조하기 위해 위의 기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F-  
 ①에서는 頭陀山에 위치한 삼화사의 입지조건을 설명하였다. ②에서  
 는 삼화사가 마주보고 있는 三公峰의 유래를 적시하였다. 신라 말에  
 세 神人이 무리를 거느리고 모여서 의논했는데 마치 제후가 회맹하던  
 예와 같았다. 그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삼공봉’이라고 하였다. ③에  
 서는 범일이 삼공사 창건 조사라는 점을 밝혔다. 삼공이 회맹한 얼마  
 뒤에 굴산문의 品日 즉 범일선사가 그곳에 佛祠를 창건하여 三公寺  
 라고 편액하였다. ④에서는 태조 王建이 비보사찰로 공인하고 삼화사  
 로 개칭했음을 전한다. 즉, 범일 이후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조칙  
 을 내려 이 절을 ‘籍名錄案’하여 후사에 전하게 하였다. 절 이름도  
 ‘삼화사’로 사액하였다. <석영암기>는 신라 말 三神人의 자취가 서  
 린 삼공봉 아래에 범일이 삼공사를 창건하였고, 왕건의 후삼국 통일  
 후 삼화사로 고쳤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삼화사 철불의 명문을 통해 삼화사는 범일 이전에 창건했  
 음이 확인된다. 명문은 사주단변과 계선이 있는 세로 22.7cm, 가로

4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삼척도호부, 불우, 삼화사.

46) 이종문, <‘석영암=덕흥군’ 설에 대한 재검토> 《한문교육연구》 19,  
 2002.

34cm의 금속판에 해서체로 양각되어 있다. 모두 10행 161자이다. 오른쪽 상단 모서리가 깨져나갔으며, 윗부분은 마모가 심해 판독되는 것은 140자 정도이다.<sup>47)</sup>

G) (결락)에는 國人이 疎勒이라 이르고 또 靑丘 시에는 新(결락)이라 이른다. (결락) 釋迦佛 말법 300여년에 불상을 이루었다. 이때에 國(결락)王의 발원으로 말미암아 결단하여 다하도록 敎하였고, 華嚴業의 決言 太大德이 □白의 伯士가 되었다. 승려(釋氏)인 乘炬가 發心且越이 되고, 승려인 廳默과 승려(釋氏僧)인 道初 등이 上首가 되었다. 시방의 단월이 한결같은 마음과 발원으로 盧舍那佛을 이루었는데, 이 큰 뜻(大志)은 노사나불의 大願力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까닭으로 미래(當來)에 下生하는 彌勒尊께서 이곳에서 華嚴經을 說하시고, 이 큰 인연(大因緣)으로 말미암아 □□劫에 出現하는 부처님께서는 매번 이곳에서 華嚴大不識儀經을 □□□에 이루실 것이다. 발심단월은父는 體虛, 母는 念法으로 지었으며, □□ 見勤이 짓고 沙彌 金解善이 행하였다.

명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음미할 만하다. ‘釋迦佛 末法 300여년’은

47) 방동인, 앞의 논문, 1997 ; 황수영, <삼화사의 신라철불좌상의 배각명기> 《문화사학》 8, 1997 ; 정영호, 앞의 논문, 1997 ; 장정룡, <삼화사 철불의 문화사적 의미> 《문화사학》 8, 1997 ; 박성종, <삼화사 철불 명문에 대하여> 《문화사학》 8, 1997 ; 진홍섭, <삼화사의 탑상> 《고고미술》 129·130, 1976 ; 진홍섭, 《신라·고려시대 미술문화》, 일지사, 1997 ; 동해시, 《두타산과 삼화사》, 민족사, 1998 ; 김창호·한기문, <동해시 삼화사 철불 명문의 재검토> 《강좌 미술사》 12, 1999 ; 김상현, <삼화사 철불과 화엄업 결연대대덕> 《문화사학》 11·12·13, 1999 ; 문명대, <원효계 화엄중 본존불 문제와 삼화사 칠노사나불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36, 2002 ; 김창호, <동해시 삼화사 철불 조상의 역사적 의미> 《경주문화연구》 5, 2002 ; 《한국 고대 불교고고학의 연구》, 서경문화사, 2007 ; 광승훈, 《통일신라시대의 정치변동과 불교》, 국학자료원, 2002 ; 김유범, <동해시 삼화사 철불의 이두문> 《구결연구》 31, 2013 ; 유시내, <삼화사 철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4 ; 장일규,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상의 조성과 그 의미> 《이사부와 동해》 9, 2015.



신라인들이 당시를 말법시대로 인식하였음을 알려준다. 신라하대 혼란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었으며, 미륵하생신앙과도 연계되었다. 신라하대 화엄종에서도 미륵하생신앙을 포용한 사례이다.<sup>48)</sup> 아울러 이 불상의 조성연대를 짐작할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佛滅 후의 正法 500년, 像法 1,000년, 末法 10,000년으로 인식했고, 불멸은 기원전 949년이라고 파악했다.<sup>49)</sup> 철불은 불멸 후 1,800년이 지난 대략 850~860년대에 조성되었다.<sup>50)</sup>

삼화사 철불은 盧舍那佛인데, 신라하대 화엄종 사찰에서도 노사나 불을 조성했다. 이 불상은 국왕의 발원과 敎에 의해 왕경(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삼척)에서 제작되었다. 佛事를 총감독한 伯士는 화엄업(종)의 決言 太大德이었다. 그는 경문왕대 원성왕의 추복을 위해 鵠寺를 崇福寺로 중창하고 개최한 법회에 《화엄경》을 강설하고, 헌강왕 때에는 賢俊과 함께 華嚴社會를 조직한 승려였다.<sup>51)</sup> 이 철불은 대략 경문왕대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당시 삼화사는 화엄종 사찰이었다.

철불 조성의 배경은 혼란한 말법시대에 삼척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 일대의 이반하던 민심을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당시 영동일대는 김주원계와 밀접했으므로, 이들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거기에 인근의 명주 굴산사에 머물던 범일과 굴산문도 의식했을 듯하다. 범일은 낙산사를 굴산문으로 포섭하는 등 점차 세력을 확대하

48) 김상현, 앞의 논문, 1999, 447쪽 ; 광승훈, 앞의 책, 2002, 239쪽.

49) 김상현, 앞의 논문, 1999, 438쪽 ; 광승훈, 앞의 책, 2002, 234~235쪽 ; 장일규, 앞의 논문, 2014, 168쪽, 주) 35.

50) 철불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고려 초라는 이견이 있지만(김창호·한기문, 앞의 논문, 1999 ; 김창호, 앞의 책, 2007) 대부분 9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51) 김상현, 앞의 논문, 1999. 장일규는 결언을 海印寺의 승려로 파악한다(장일규, 앞의 논문, 2014, 173쪽).

고 있었다. 삼화사 철불은 김주원계를 염두에 두고 범일·굴산문 세력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불사였을 가능성이 있다.<sup>52)</sup>

명문에는 <석식영암기>에서 언급한 三神人(三公)은 물론 범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삼신인은 철불의 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또 짧은 명문 내용에 신인의 설화를 수록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듯하다. 범일의 경우는 철불이 범일 주석 전에 제작되어 언급하지 못했을 것이다.

요컨대, 삼공사는 대략 860년대에 왕실에서 창건한 화엄종 사찰이었다. 철불을 조성하면서 그 연유를 기록한 명문을 남겼다. 범일이 삼공사(삼화사)를 창건했다는 <석식영암기>는 낙산사의 <古本>과 마찬가지로 범일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다.<sup>53)</sup> 따라서 범일이 ‘창건’했다는 내용은 그가 ‘주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범일이 삼화사와 관련된 사실은 믿어도 좋을 듯하다.

범일의 삼화사 주석 시기는 삼화사 철불 조성 이후였을 것이다. 그는 851년 굴산문을 개창하고, 858년(헌안왕 2) 낙산사에 정취보살전 3칸 등을 세웠다. 871년(경문왕 11), 880년(헌강왕 6), 887년(정강왕 2)에는 국사 책봉을 위해 초빙했으나 사양했다. 그 사이 860년대에 삼화사 철불이 조성되었다. 범일의 삼화사 주석은 정취보살전 건립 이후가 아닌가 싶다. 이 시기 신라왕실에서 선승들을 초빙하거나 왕실과 관련한 사찰을 기진하여 주석토록 한 사례는 자주 찾아진다. 헌안왕은 普照 體澄(804~880)에게 迦智山寺를 기진했고, 경문왕은 圓鑑 玄

52) 삼화사 철불 조성은 당시를 말세로 인식하는 민심을 위무하고 굴산문과 같은 선종 산문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장일규, 앞의 논문, 2015, 158쪽).

53) 김두진은 “삼공사(삼화사)가 범일에 의해 개창된 것으로 전해지는 전설은 꼭 믿을 수는 없으나, 굴산문에 소속된 사원이었음을 생각하게 한다.”고 하였다(김두진, 앞의 논문, 1986, 304쪽).

曇(787~868)에게 高達寺, 朗慧 無染(800~888)에게 상주 深妙寺를 禪那別觀으로 삼도록 했다. 진성여왕은 澄曉 折中(826~900)에게 陰竹縣의 元香寺를 禪那別觀으로 永屬토록 하였다.

범일은 왕실의 국사 책봉에 불응했다. 그러자 왕실과 밀접한 삼화사를 기진하여 이거를 요청했거나, 소속사원으로 삼도록 했던 듯하다. 범일은 국사 책봉은 거절했으나, 삼화사 기진은 수용했던 듯하다. 이러한 추정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삼화사는 860년대 왕실과 연결된 화엄종의 사찰이었으나, 870년대 이후에는 굴산문에 속한 사찰로 변모한 것으로 파악된다.<sup>54)</sup> 아울러, 그 경제적 기반도 굴산문으로 흡수됐을 것이다.

범일은 851년 명주의 굴산사에서 굴산문을 개창하였다. 858년 화엄종 사찰인 낙산사를 포섭했다. 범일과 굴산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신라왕실에서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860년대에 들어 삼척지역에 삼화사를 창건하고, 화엄승 결연의 주도하에 철불을 조성했다. 당시 영동지역에 세력을 떨치던 김주원계와 굴산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조치였다. 하지만, 왕실의 이러한 시도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듯하다. 이에 범일을 국사로 책봉하면서 결연을 시도하지만, 범일의 사양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그렇게 되자 삼화사를 굴산사의 소속으로 삼도록 하여, 범일을 끌어들이고자 했던 듯하다.

범일은 김주원계의 지원으로 굴산사를 개창하고, 낙산사를 굴산문으로 포섭했다. 당시까지 굴산문의 주요 단월은 김주원계로 보인다. 이후 경문왕계 왕실에서 범일을 국사로 책봉하면서 본격적인 결연을 시도하였다. 범일은 국사 책봉은 거절했지만, 왕실과의 관계를 차단하지는 않았다. 굴산문의 발전에는 왕실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54) 방동인·정영호 등은 864년(경문왕 4) 범일이 불사를 건립하고 ‘삼공암’이라고 했다고 한다(방동인, 앞의 논문, 1997, 16쪽 ; 정영호, 앞의 논문, 1997, 26쪽),

해, 삼화사를 기진하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척지역은 중고기 이래 신라의 성장과 발전, 특히 동해안의 제해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sup>55)</sup> 삼척은 굴산사가 있는 명주의 남쪽에 있으면서, 굴산문이 경북내륙으로 통하는 중간지점에 자리했다. 특히, 남쪽으로 왕경인 경주 방향으로 세력을 확대해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이러한 입지적 요인으로 범일은 삼화사를 중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 IV. 맺음말

梵日(810~889)선사는 입당유학을 마치고 847년(문성왕 9) 귀국하였다. 잠시 白達山에 머물다가 851년(문성왕 13) 溟州都督 金公의 요청으로 嶺山寺에 주석하였다. 범일과 굴산문의 단월에 대해서는 金周元계와 밀접했다거나, 무관하다는 상반된 이해를 보이고 있다.

범일은 溟州 출신으로 그의 가문은 정치적으로 김주원계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명주도독 김공은 신라왕실에서 파견한 지방관이었다. 그는 국왕이었던 문성왕의 의도에 따라 김주원계를 견제하고 명주지역의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 범일을 초빙했다. 범일의 입장에서는 명주가 자신의 출신지로 세력기반이 있고, 김주원계의 후원이 기대되며, 명주도독의 요청이 더해졌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범일의 굴산사 주석은 명주도독의 초청이 계기가 되었지만, 김주원계, 범

55) 손정미, <동해안 지역의 신라고분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호동, <고·중세 동해안 지역 통치운영상에 있어서의 사원 역할> 《한국 고·중세 불교와 유교의 역할》, 경인문화사, 2007 ; 김창겸, <신라의 실직국 복속과 지방통치의 추이> 《신라사학보》 32, 2014.

일 등 三者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범일이 신라왕실의 본격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굴산사에 주석한 지 20년이 지난 871년(경문왕 11) 경이었다.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 등 경문왕계 왕실에서 범일을 주목하여 國師에 책봉코자 했다. 이는 굴산문이 명주에서 성장한 이후의 일이었다. 굴산문의 성장은 범일의 가문과 김주원계의 후원이 주요했던 듯하다. 그러다가 신라왕실의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굴산문은 김주원계의 후원으로 성장했고, 신라왕실의 지원이 보태지면서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다.

범일은 889년(진성여왕 3) 입적하였다. 왕실에서는 ‘通曉大師’라는 시호와 ‘延徽之塔’이라는 탑명을 내렸다. 그리고 부도탑과 탑비 건립을 후원하였다. 범일의 비문은 효공왕 때에 朴仁範이 찬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침 그는 <梵日國師影讚>을 짓기도 했다.

굴산사에서 수습된 범일 비편 중에는 “意□(余?) / 和尚言”, “溟州都督銀 / 副都督” 등의 글자가 판독된다. 전자는 비문의 본문이고, 후자는 음기로 여겨진다. 본문은 범일이 중국이나 굴산사에서 나눈 선문답의 일부로 보인다. 음기의 ‘명주도독’과 ‘부도독’ 등은 탑비 건립에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부도독’은 州助(州補·別駕)의 또 다른 용례로, 범일 비편에서만 확인된다. ‘명주도독은’의 ‘銀’은 ‘김은’ 혹은 ‘김은□’이라는 인명이거나, 唐에 입조·숙위하면서 받은 文散階의 첫 글자일 가능성이 높다.

범일은 굴산사 주석 이후 洛山寺와 三和寺 등을 포섭하면서 굴산문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낙산사는 문무왕 때 義相(625~702)에 의해 관음상주처로 정착하였다. 이후 범일이 858년(헌안왕 2)에 正趣菩薩殿 등 佛殿을 건립하면서 굴산문 소속으로 전환하였다. 정취보살전 건립에 명주도독이나 신라왕실의 후원은 찾기 어렵다. 낙산사 인근 재지세력 등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낙산사는 상당

한 규모의 경제력을 갖추었고, 이를 확보함으로써 굴산문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범일이 주석한 굴산사와 낙산사는 김주원계의 식읍지와 분포 범위가 겹쳐진다. 이는 범일과 굴산문을 후원한 단월세력의 성격을 시사한다. 낙산사는 굴산문이 영동 북부와 중부 내륙으로 진출하는 거점지에 해당한다.

三和寺는 범일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철불 명문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다. 삼화사(三公寺)는 860년대 전후 신라 왕실에서 창건한 화엄종 사찰이었다. 철불은 경문왕대에 신라왕실과 화엄승 決言의 주관으로 이뤄졌다. 김주원계를 염두에 두고 굴산문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하지만, 굴산문의 영향력이 증대하자, 왕실에서는 범일을 국사로 책봉하는 등 결연을 시도하였다. 범일이 응하지 않자 삼화사 주석을 요청하고, 굴산사 소속으로 삼도록 했던 듯하다. 그 결과 삼화사는 870년대 이후 굴산문의 사찰로 변모되었다. 삼화사는 굴산문이 왕경인 경주 방향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중간 거점이 되었다.

범일은 굴산사에 주석하면서 북쪽의 낙산사, 남쪽의 삼화사를 포섭하였다. 신라시대 선종이 정착하면서 교종에서 선종 사찰로 전환한 사례인 셈이다. 낙산사에서는 김주원계의 도움을 받았고, 삼화사는 신라왕실의 후원이 있었다. 이로써 범일은 굴산사의 남·북에 입지한 거점사찰을 확보하였고, 그 인적·물적 자원을 토대로 굴산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보고서

- 강릉대학교 박물관, 《굴산사지 부도 학술조사보고서》, 1999.
- 강원문화재연구소, 《강릉 굴산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006.
- 곽승훈, 《통일신라시대의 정치변동과 불교》, 국학자료원, 2002.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고대도시 명주와 굴산사》, 2011.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사굴산문 굴산사》, 2012.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강릉 굴산사지(사적 448호) 시굴조사보고서》, 2013.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옛 기록 속의 굴산문》, 2013.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강릉 굴산사지(사적 제448호) 제3차 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집》, 2014.
-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 김호동, 《한국 고·중세 불교와 유교의 역할》, 경인문화사, 2007.
-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신라편·고려편1, 가산문고, 1993·1994.
- 정성본, 《신라선종의 연구》, 민족사, 1995.
- 조범환, 《나말려초 선종산문 개창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조범환, 《나말려초 남종선 연구》, 일조각, 2013.
-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3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한국역사연구회, 《역주 나말려초금석문》 상·하, 혜안, 1996.
-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 2. 논문

- 강재광, <문성왕대의 정국과 「창립사 무구정탑원기」 조성의 정치적 배경> 《한국고대사탐구》 7, 2011.
- 김두진, <신라하대 굴산문의 형성과 그 사상> 《성곡논총》 17, 1986.

- 김상현, <삼화사 철불과 화엄업 결연대대덕> 《문화사학》 11·12·13, 1999.
- 김유범, <동해시 삼화사 철불의 이두문> 《구결연구》 31, 2013.
- 김창겸, <신라 ‘명주군왕’고> 《성대사림》 12·13, 1997.
- 김창겸, <신라의 실직국 복속과 지방통치의 추이> 《신라사학보》 32, 2014.
- 김창호, <동해시 삼화사 철불 조상의 역사적 의미> 《경주문화연구》 5, 2002.
- 김창호·한기문, <동해시 삼화사 철불 명문의 재검토> 《강좌 미술사》 12, 1999.
- 김홍삼, 《나말려초 굴산문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02.
- 김홍삼, <나말려초 굴산문 개청과 정치세력> 《한국중세사연구》 15, 2003.
- 김홍삼, <나말려초 굴산문의 선사상> 《백산학보》 66, 2003.
- 김홍삼, <신라말 굴산문 범일과 김주원계 관련설의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 연구》 50, 2008.
- 도의철, <강릉 굴산사지(사적 제448호) 가람의 고고학적 성과와 고려 굴산사> 《한국선학》 36, 2013.
- 박성종, <삼화사 철불 명문에 대하여> 《문화사학》 8, 1997.
- 방동인, <굴산사에 대한 연구와 전망> 《고문화》 24, 1984.
- 방동인, <삼화사의 창건과 역사성 검토> 《문화사학》 8, 1997.
- 방동인, <굴산사와 범일에 대한 재조명> 《임영문화》 24, 2000.
- 석길암, <나말려초 오대산 불교권의 재형성과정과 배경> 《한국사상사학》 46, 2014.
- 손정미, <동해안 지역의 신라고분에 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신천식, <한국불교사 상에서 본 범일의 위치와 굴산사의 역사성 검토> 《영동 문화》 창간호, 1980.
- 신호철, <후삼국시대 명주호족과 굴산사> 《한국고대사탐구》 9, 2011.
- 엄기표, <굴산사지 석조부도의 주인공과 미술사적 의미> 《선사와 고대》 37, 2012.
- 유시내, <삼화사 철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4.
- 이문기, <통일신라의 지방관제 연구> 《국사관논총》 20, 1990.
- 이종문, <‘석영암=덕흥군’ 설에 대한 재검토> 《한문교육연구》 19, 2002.
- 장일규,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상의 구성과 그 의미> 《이사부와 동해》 9, 2015.



- 정동락, <통효 범일(810-889)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24, 2001.
- 정동락, <고려시대 낙산사의 사원경제에 대한 검토>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 2001.
- 정동락, <범일(810-998)의 선사상> 《대구사학》 68, 2002.
- 정동락,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동향> 《한국고대사탐구》 7, 2011.
- 정영호, <삼화사 철불과 삼층석탑의 불교미술사적 조명> 《문화사학》 8, 1997.
- 최병현, <신라하대 선종구산파의 성립> 《한국사연구》, 19727.
- 한기문, <신라말 선종 사원의 형성과 구조> 《한국선학》 2, 2001.
- 홍성익, <굴산사지 범일의 부도 명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24, 2012.
- 홍성익, <신라말 강원지역 선종의 전래와 정착과정> 《신라사학보》 33, 2015.
- 황수영, <삼화사의 신라철불좌상의 배각명기> 《문화사학》 8, 1997.

ABSTRACT

## Beomil's Opening of Gulsanmun and Making of Foundation for its Growth

Jung, Dong-lak

Monk Beomil(810~889) was from Myeongju, and his family had the common interests with Kim Ju-won's lineage. In the growth of Gulsanmun, support from Beomil's family and Kim Ju-won's lineage did work crucially. Meanwhile, around the year of 871(King Gyeongmun 11) when Silla's royal family invited him as a national mentor, the royal family's support genuinely began. Beomil and Gulsanmun grew with support from Kim Ju-won's lineage and could develop rapidly with support from Silla's royal family.

There is possibility that Beomil's tombstone was built by Pak In-beom during King Hyogong's reign. Figures like 'Myeongju Dodok' or 'Budodok' on the pieces of tombstone found in the ground of Gulsansa were the ones involved in building the tombstone. Beomil staying in Gulsansa won over Naksansa and Samhwasa and so on. Naksansa and Samhwasa were both Buddhist temples in the Hwaeom sect. For Naksansa, Kim Ju-won's lineage gave help, and for Samhwasa, Silla's royal family gave support. Beomil secured foothold Buddhist temples located in the north and south of Gulsansa and laid the ground for growth based on that.

Key words : The late period of Silla, Beomil(梵日), Gulsanmun(崛山門),  
Gulsansa(崛山寺), Naksansa(洛山寺), Samhwasa(三和寺)

논문투고일 : 2015. 11. 7 심사완료일 : 2015. 11. 27 게재 확정일 : 2015. 12. 5